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5>

스님이 문해대중에게 설법했다. “도(道)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벌써 간택한 것이기도 하고, 명백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승은 도는 명백한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자네들은 도리어 그 것(道)을 아끼고 보호하려 하는가?”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명백한 곳에 있지 않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중요시하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도 몰라.”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이미 모른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명백한 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질문은 그것으로 됐어. 예배하고 물러가라.”

師示衆云 至道無難 唯嫌揀擇 纔有言語 是揀擇 是明白 老僧卻不在明白裡 是你還護惜也無 問和尚既不在明白裡 又護惜箇什麼 師云 我亦不知 學云 和尚既不知 爲什麼道不在明白裡 師云 問事即得 禮拜了退

도(道)에 들어가려면 우선 간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간택은 대개 양변을 간택한다. 선과 악, 부처와 중생, 잘난 자와 못난 자, 부와 가난, 좋은 것과 싫은 것 등의 양변의 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 양변을 선택하는 마음을 끊지 못한다면 도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도 하나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도(道)는 너무 명백하다. 도는 없는 곳이 없고 도가 나타나지 않는 곳도 없다. 그러나 도가 명백하지만 도를 선명하게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도는 명백한 곳에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도가 명백한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중요시 하는 것은 없다. 조주 스님은 다만 학인들이 집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갖다 버리라고 가르친 뿐이다. 조주 스님은 도를 모르지만 도를 보여주고 일러주는 것을 능숙하게 한다. 따라서 조주의 ‘모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연히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려해서는 안 된다.

선사를 압도하는 방법은 2-3단계 높은 것을 들이대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주 스님의 ‘모른다’는 말끝에 무슨 말을 해야 조주의 청진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공리해 보길 바란다. 만일 나에게 물

간택하는 마음을 버려라

는다면 “나는 스님의 연패(戀佩)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서 설법했다. “법은 본래 불생(不生)이며, 지금도 무멸(無滅)이다. 따라서 생이라고 말하거나 멸이라고도 말하지 말라”라는 따위의 말도 필요 없다. 여러분은 자, 생각해보라. 불생불멸의 도리가 어떠한가?”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 벌써 불생불멸의 도리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자는 그저 하나의 죽은 말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군.”

師示衆云 法本不生 今即無滅 更不要道 纔語是生 不語是滅 諸人且作麼生 是不生不滅底道理 問 早是不生不滅 師云 者漢只認得箇死語

본래 생이 없기 때문에 멸도 없다는 것이 불생불멸의 뜻이다. 불생불멸 이 한 글귀는 참으로 많

사람의 선택들은 모두 부질없는 것 중요한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 한번 진리에 눈이 뜨이면 일평생 편안해짐을 얻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조주 스님 역시 불생불멸의 뜻을 설명해주면서 참다운 불생불멸은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중들에게 “그대들은 불생불멸의 도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하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학승이 “스님께서 이제껏 설명하신 것이 곧 불생불멸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반문성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실을 표현한다면 도는 결국 말장난 밖에 되지 않는다. 도를 찾는 자들은 항상 진술하게, 그리고 보다 입체적으로, 혹은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전 선사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바로 그런 예인데, 다만 죽은 말을 외우고 다녀서는 남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들이여, 어떻게 해야 불생불멸의 도리를 제대로 이르는 것이 되겠는가? 한 번 공리해 볼 일이다. 만일 이 남자에게 누가 묻는다면 “창천(蒼天), 창천(蒼天!)”하고 이르겠다.

학승이 물었다.

“도(道)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한다면 벌써 간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화상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찌하여 옛 사람의 말을 전부 인용하지 않는가?” 학인이 말했다. “저는 다만 그 말 그대로 말하였을 뿐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지도무난 유협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이야.”

問 至道無難唯嫌揀擇 纔有言語是揀擇 和尚如何示人 師云 何不盡引古人語 學云 某甲只道得到這裡 師云 只這至道無難唯嫌揀擇

사람은 평생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선택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부질없는 것들이다. 명예, 욕망, 분노, 사랑 등은 모두 사람들이 세워놓은 허망한 가치들이다. 그 허망한 가치를 쫓아 일평생 살아가고 있으니 인생이 한편의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생이 꿈속의 삶이라 행위는 선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낫다. 못하다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道)는 정신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다.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되면 그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평생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도이다. 그중에서 승찬 스님은 어떤 것이든 선택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간택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간택이 되니 그런 말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선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까. 이 또한 학인들의 궁금증이 될 만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조주 스님은 ‘지도무난 유협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이라는 말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 진실이나 사랑 같은 것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말의 힘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사랑을 판별할 수 있듯이, 도를 얻은 자도 선배 도학자(道學者)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선배만 할 수 있는 일이다.

■ 무불선선 원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6 절관론

도리는 무심에 근거해야 한다

도신의 가르침은 우두법용(牛頭法融, 594-657)의 계통으로 분립돼 소위 우두종(牛頭宗)이 출현했다. 우두종은 <절관론(絶觀論)>의 저자로 간주되는 우두산의 법용이, 제4조 도신(580-651)의 법을 받은 이후에 법용(法融)-지엄(智嚴)-해방(慧方)-법지(法持)-지위(智威)-혜중(慧忠) 및 현소(玄素) 등으로 계보를 형성했다. 이것은 달마계통의 선종이 제5조의 홍인(601-674) 이후에 신수 계통의 북종과 혜능 계통의 남종으로 분립되기 이전에 해당한다.

우두종의 전승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이화(李華)의 <윤주학림사고경산대사비명(潤州鶴林寺故徑山大師碑銘)>이다. 이에 의하면 달마 대사의 선법이 이후 삼전(三傳)해 도신 대사에 이르렀다. 도신의 문인으로 응(融) 대사가 있는데, 혜중에 이르기까지 육전(六傳)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두종의 제6조에 해당하는 학림원소(鶴林玄素, 666-752)의 <비명>에 기초해 <원각경대소초> <조당집>을 비롯해 <종경록>과 <경덕전등록> 등에도 달마선의 분파로서 우두종의 전승 사실이 기록돼 있다.

우두종의 선종은 우두법용의 <절관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절관론>은 <입리연문론(入理緣門論)>이라고도 한다. 돈황본 자료로는 4종의 페리오본을 비롯해 <소실일사>의 수록본 등이 전해진다. <절관론>의 본문에 대한 연구는 이미 우두법용 및 달마 대사 등과 관련해 여러 편의 논문 및 저술로 작성됐다.

<절관론>은 달마의 <이입사행론>의 뜻을 계승해 찬술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실제로 <이입사행론>에 수록돼 있는 주제와 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다수 들어있기 때문에 달마의 찬술이라는 학설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때문에 <삼장법사보리달마절관론>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점은 오히려 그만큼 달마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계승했다는 긍지심과 아울러 달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개돼가는 당시 선법의 상황을 보여주는 의도이기도 했다. 그와 같은 전승계보의 계승이 곧 <절관론>으로 출현했다. 그런 점에서 <절관론>의 내용은 당연히 반야사상의 충실한 계승이었다. <절관론>은 사상적으로 당시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삼론(三論)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그에 바탕해 달마선의 전통을 주장한 것이었다.

<절관론>에서 절관(絶觀)이라는 말은 삼론의 대성자인 길장(吉藏)의 <대승현론(大乘玄論)> 가운데 보

이는 말이다. 절관은 심중(深重)한 반야의 뜻에서 절관의 반야이기도 하다. <절관론>의 주제를 보면 그 도입부에서 “본래 대도는 대단히 미묘해 분별됨으로 알 수가 없고 언설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전제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선법의 교의를 설명하기 위해 가상으로 입리(入理) 선생과 연문(緣門) 제자의 두 사람을 내세워 대화의 형식으로 전편이 구성돼 있다. 가령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설정한다. 이에 대해 “마음을 유(有)라는 것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케 하려고 의도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한다. 곧 절관의 도리는 분별과 집착과 공능과 조작 등을 초월해 무심에 근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문제자가 물었다. “부처란 무엇이고, 도는 무엇이며,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리 선생이 답했다. “일물도 없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 곧 부처이다. 모든 것에 통달하는 것이 도이다. 세계가 생겨나는 것이 변화이다. 모두 사라져 고요한 것이 영원이다.”

한편 <절관론>의 마지막 대목에는 연문제자가 마침내 깨침을 터득하고 입리 선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탄해 묻는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스승께서는 설함이 없이 설하셨고 저는 들음이 없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설함과 들음이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신 문답을 스승께서는 무어라 부르시면 좋겠습니까?” 입리 선생은 이삼전심으로 파악하고 나서 연문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래 그윽한 진리는 미묘하여 언설이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가 질문한 것은 모두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가령 꿈에서는 참으로 번거로웠지만 깨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이 가르침을 세상에 유통시키고자 질문을 만들고 언설을 빌린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흔적마저 거두어야 좋을 듯하다. 이에 <절관론>이라 말한다.”

<절관론>의 입장은 이와 같은 반야공공의 사상을 근거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논리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절관(絶觀)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것처럼 생생히 움직이는 인간의 대화를 통해 어디까지나 그 사상을 실제생활의 인식 위에서 체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사로서 그 면목이 드러나 있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죽림정사의 달마대사 진영. (현대불교자료)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3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 과정 ◆

- 실기교육 : 흥은사 주지 성각스님
-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범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육, 시식 천수바라미, 오공양 작법무
- ※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 모 집 : 수시모집
-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 수강시간 : 오후 3시
- ◎ 범음대학 : 흥은사 대응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초보자도 여법하게 불공과 제의식 가능하도록 교육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흥은사 총무소 (051)243-3165 011-887-8600

카이로프락틱(체형 교정) 치유사 수강생 모집

◆ 대상 : 스님, 일반불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법! 스님, 불자님 이제 건강도 직접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한국대체의학연구소에서 책임집니다.



교육과정 카이로프락틱 치유사

교육내용

- ◆ 체형교정치유 - 목 등 허리 골반 디스크 / 척추 / 성장 / 비만
- ◆ 통증치유 - 급 만성 요통 / 어깨 무릎 통증 / 다리저림 / 오십견 / 두통 / 생리통 / 턱관절
- ◆ 재활치유 - 척추손상 / 관절손상 / 뇌졸중(중풍) / 뇌성마비 / 척수마비 / 루마티스 관절염

연수장소 안양 아크로타워 4층 세미나실

교육기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13시 - 17시(3개월 과정)

교육특전 수료증, 심사후 자격증 수여, 치유센터 개설시 운영지도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의학박사 엄강호 원장

-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소장
- 한국대체·카이로프락틱협회 경영교문
- 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사법자격소유
- 원천의학사(국제자격증)
- NLP인성 교정사(국제자격증)
- 최원심리교정사(국제자격증)

국가기관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예약문의 031)381-6100 / 010-3748-2500

종무원인 禪農教團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禪農 一道 開心 正覺

- ◆ 입 종 비 : 없음
- ◆ 입종서류 : 이렇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 사무국장 :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몸은 하나로 귀속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감상자전

감산대사(義)·대성스님(大聖)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사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 환영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